

傳統(전통)과 未來(미래)가 있는 東山高等學校



김건수 교장선생님



나 이 70세를 “從心所欲不踰矩”(종심소욕불유구: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음)라고 합니다. 즉 그의 행위는 더 이상 의식적인 자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경지야말로 성인의 최종단계라는 뜻입니다.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하던 日帝治下(일제치하)인 1938년 최승우설립자를 비롯한 민족의 선각자들은 教育(교육)만이 이 나라를 찾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였고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先輩(선배)들이 오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킨 덕분에 名門(명문) 東山은 내년 開校(개교)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김은하 前國회의장, 김종상 前부산국세청장, 대한민국 레스링 최초로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임배영, 올림픽 동메달 장창선, 아시아 홈런왕 박현식, 가수 백영규, 유심초, 연예인 박상원,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야구 MVP·신인왕을 동시에 수상한 한화이글스의 류현진투수를 비롯한 훌륭한 동산인들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에서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5년 서울대 7명, 인하대 40명 등 수도권 대학에 100명 이상이 합격하여 동산의 위상을 높였고 지난해에도 지역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재학생 여러분들도 선배들이 세워 놓은 명문 동산의 傳統(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努力(노력)하여 훌륭한 人才(인재)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첫째, 孝道(효도)하는 學生(학생)이 됩시다.

삼성그룹 이진희회장은 “효도하고 또 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父母(부모)없이 내가 없고 장차 결혼하여 얻게 될 자식들에게 내 자신이 존경받으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에 대한 尊敬(존경)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校則(교칙)을 잘 지키는 學生(학생)이 됩시다.

法과(법)과 秩序(질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칙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교칙이 정한 교내에서의 금연, 두발, 복장 등 학생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성실히 지킬 때 졸업 후 선진·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實力(실력)있는 學生(학생)이 됩시다.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영어만 잘해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2외국어 하나는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젊음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고3학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텐데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잘 이겨내고 적응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님께서는 신뢰와 만족을, 선생님들은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